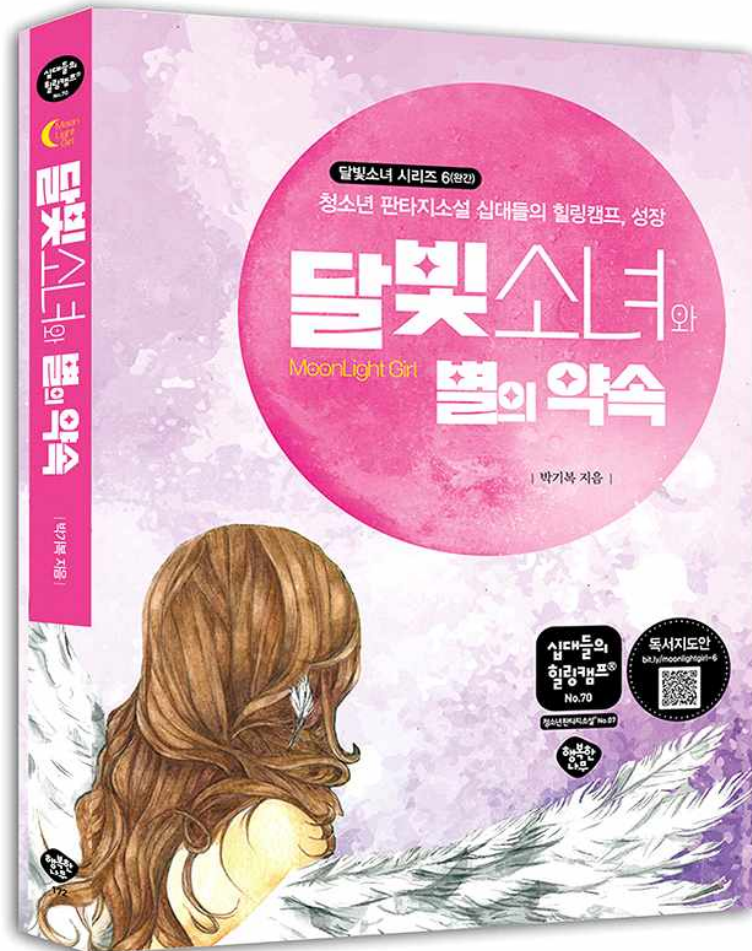


학생용 독서 활동지(중학생)

## 달빛소녀와 별의 약속

청소년 판타지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 성장



박기복 글 / 행복한나무 / 216쪽

주제어 : #질문 #인간본성 #신단수 #질투 #결핍 #화해 #욕망

분 류 : 문학 > 한국문학 > 청소년소설

중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달빛소녀와 별의 약속

청소년 판타지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 질문

## 구성

활동	수업	활동 제목	세부 내용
읽기 전 활동	1차시	•책과 만난 첫인상 •검색은 나의 힘	•책 표지를 살피며 감정과 생각을 떠올린다. •검색을 통해 필요한 배경지식을 미리 쌓는다.
	2차시	•거침없이 쓰기	•소설의 핵심 상징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 본다. •거침없이 쓰기를 통해 글쓰기 솜씨를 키운다.
참고자료	책과 친해지는 습관		
읽기 중 활동	3차시	• 줄거리 정리하기 • 잠깐 멈춤! 생각! • 옮겨 쓰고 낭독하기	• 사건과 감정/생각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정리한다.
	4차시		•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5차시		• 본문 일부를 옮겨 쓰고 낭독하며 책의 맛을 느낀다.
읽기 후 활동	6차시	• 내용 이해하기 • 나와 연결하기 • 깊이 이해하기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책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한다.
	7차시	• 토론하기	• 책에서 뽑은 주제로 토론한다. • 존중의 마음으로 토론하고, 새로운 배움을 얻는다.
	8차시	• 생각 확장하기	• 책의 주제의식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참고자료	독후감을 쉽게 쓰는 방법		
독후감 쓰기	9차시	• 독후감 쓰기 준비 • 독후감 쓰기	• 편하고 쉽게 독후감을 쓰는 요령을 익힌다.
	10차시	• 독후감 공유하기	• 독후감을 공유하며 생각의 폭을 넓힌다.

책과 만난 첫인상

표지는 책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많은 의미가 담겼듯이 책 표지에도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책과 얼굴을 맞대고 표지를 살피는 데서 독서가 시작됩니다.

1. [제목] 평소에 품었던 질문을 꺼내보세요?

---

---

2. [제목] 힘들었지만 반드시 지켰던 약속이 있나요?

---

---

3. [앞표지] 보름달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

---

검색은 나의 힘

소설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쌓으면 책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래 단어로 검색해서 알게 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토미리스	#신단수	#인간본성



# 책과 친해지는 습관

## ● 한 달에 한 권은 책을 삽니다.

책을 사려면 책을 살펴야 하고, 좋은 책을 고르다 보면 책을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돈을 들이면 그만큼 애정이 가고, 책꽂이에 꽂아두면 나중에라도 읽게 됩니다. 책과 친해지는 으뜸 방법은 책을 사는 것입니다.

## ● 책으로 하루를 열고 마감합니다.

‘아침10분독서’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는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 뇌파가 안정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휴대전화가 아니라 책으로 아침을 열고, 하루를 닫으세요.

## ● 책에 흔적을 남기며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책을 읽을 때 그들이 읽는 책은 정말 같은 책일까?”(미하엘 엔데/모모 작가)  
같은 책을 읽어도 인상 깊은 부분, 배운 점, 느낀 점이 다 다르기에 실제로는 저마다 다른 책을 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밑줄을 긋고 메모하면서 책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책이 탄생합니다.

## ● 읽기를 멈추고 골똥히 생각합니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공자)  
아무리 좋은 책도 자기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진짜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여, 그대 이름은 바보!’란 말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책을 읽는 중간 중간에 잠시 멈추고, 읽은 내용을 골똥히 생각해 보세요.

## ● 하루에 한 번은 낭독합니다.

낭독은 책 읽는 재미를 키우고, 뇌를 풍성하게 자극하며, 기억을 촉진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감정 표현력을 키웁니다. 또한 읽기 능력이 향상되고, 발음이 좋아지며, 독해력과 글쓰기 실력도 길러집니다. 옛 선비들은 낭독을 핵심 공부법으로 삼았습니다. 책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책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프롤로그> 여우누이		
<01> 오래된 꿈		
<02> 배신자의 질투		

###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

---

---

---

### 움거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움거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

---

---

---

---

---

---

---

### 잠깐! 고민

누가 나를 부러워해서 질투한다면, 즉 내가 질투의 대상이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건 어때? 고등학교 진학도 해야 하잖아.”  
“애들이 날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예뻐져서 질투는 하겠지만.”  
“질투?”  
연화는 질투라는 표현을 낯설어했다.  
“그래, 질투! 예쁘고 날씬하고, 피부도 벚꽃처럼 하얗고.”  
“나를 질투한다고? 내가 질투를 받는다고……?”

---

---

---

---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03> 상처 입은 영혼		
<04> 악인의 감정		
<05> 배고픈 사랑		



###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

---

---

---

---

### 읽어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옮겨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

---

---

---

---

---

---

---

### 잠깐! 고민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는 용기는 어디에서 올까요?

“꼭 잘못해서 사과하는 건 아니야. 교장 선생님은 권위를 중요하게 여겨.”  
권위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교정하고 싶었다.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무릎을 굽히면 용서하실 거야.”  
“전 용서받아야 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넌 절대 교장 선생님을 못 이겨. 혹시 이번에는 어찌어찌 넘어가더라도 그 뒤에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거야.”  
“그래도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고 싶지 않아요.”  
- 125쪽 -

---

---

---

---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06> 별의 약속		
<에필로그> 질문과 답		

###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

---

---

---

### 옳게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옳게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

---

---

---

---

---

---

---

### 잠깐! 고민

자신이 '평안'하던 때를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의 상황과 느낌을 묘사해보세요.

따스하고, 향기롭고, 달콤하고, 청아하고, 찬란한 기운이 내 오감을 어루만졌다. 어린 시절 엄마 젖을 빨던, 그보다는 엄마 뱃속에서 머물던, 아니 그보다 더 근원에 안긴 편안함이 내 감각을 감쌌다. 모든 감각이 편안한 물결과 더불어 하나가 되었다. 황련과 함께 샘물에 안겼을 때처럼 불안과 공포, 걱정과 슬픔, 욕망과 후회가 깨끗이 사라진 완전한 평안이 내 안까지 채웠다. - 201쪽 -

---

---

---

---

내용 깊이 이해하기

【질문1】 왜 어떤 어른들은 야단칠 때 자꾸 남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할까요?

수경이는 점점 더 아기 말투를 썼다.  
 “어릴 때 그 못된 선생은 늘 나를 잘난 애랑 견줬어.”  
 수경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난 담임 선생님을 무척 미워했다. 특하면 그 선생님을 입에 올렸고, 그럴 때마다 ‘선생’ 호칭 뒤에 ‘님’ 자가 아니라 욕을 붙였다. 그 선생님이 자신과 비교 대상으로 삼은 여자애도 싫어했다. 수경이는 유난히 경쟁심이 심하고, 무시당하면 견디지 못하고, 잘나 보이고 싶은 욕심이 강했는데 아마도 어린 시절 겪었던 차별이 수경이 심성을 뒤흔어지게 만든 것 같았다.  
 “칭찬은 절대 안 하면서, 못할 때만 늘 잘난 년과 견주며 날 나무랐어.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겁나서 한 거짓말 때문이었어. 그냥 딱 한 번 겁나서 둘러댔는데, 그걸로 나를 피노키오 같은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고 특하면 나를 나무랐어. 친구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맨날 차별하는 거짓말쟁이 선생이면서. 거짓말쟁이야!”  
 - 65쪽 / 배신자의 질투 -

---



---



---

【질문2】 진심을 담아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왜 그리 화를 낼까요? 왜 세화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심유리! 그냥 말해. 솔직히 내 잘못이 크잖아.’  
 단 한마디였지만, 그 단어를 꺼내려면 용기가 필요했다. 발끝에 힘을 주었다.  
 “미안해.” / 한 번 뺨고 나니 막힌 하수구가 뺨 뚫린 듯 시원했다.  
 “미안해, 진심으로.” / 세화 얼굴에서 경련이 사라지며 딱딱하게 굳었다.  
 “뭐가 미안한데?” / 예전 세화 목소리였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바로 그 세화였다.  
 “솔직히 말해봐. 뭐가 미안해?”  
 “세화야!”  
 지수가 말했다.  
 “미안하다면서, 그럼 미안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세화는 지수가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에게 따져 물었다.  
 - 99 쪽 / 상처 입은 영혼

---



---



---

**【질문3】** 은석/은울 증인이 아빠를 자신이 지닌 능력을 사용해 죄를 고백하게 만든 방법.

나비 한 마리가 김성팔 머리 뒤쪽으로 날아갔다. 나비가 빙그르르 돌다가 뒷골에 달라붙었다. 나비가 뇌로 파고들었다. 탐욕, 죄악, 이기심, 허영, 권력욕 등 사악한 감정이 얽히고설킨 파고들 틈이 거의 없었다. 내가 찾아서 키우려는 감정은 아무 데도 없었다. 세상에 이런 인간이 존재하나 싶었다. 나비 한 마리로는 모자랐다. 다시 한 마리를 더 들여보냈다. 여전히 빈틈이 보이지 않았다. 또 한 마리를 들여보냈다. 그래도 없었다. 또 넣었다. 또 없었다. 또 집어넣었다. 마침내, 작은 틈이 열렸다. 나비가 힘겨워했다. 한 머리를 더 보냈다.

그것은 수십 년 전에 묻힌 감정이었다. 부끄러움, 정직, 염치, 솔직함이라는 감정이 아슬아슬한 씨앗으로 남아 있었다. 나비 한 마리로는 싹을 틔우기가 힘들었다. 한꺼번에 수십 마리를 집어넣었다. 김성팔이 목덜미를 붙잡더니 인상을 썼다. 나비들이 씨앗에 달라붙었다. 강한 힘으로 씨앗을 열었다. 여린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를 뻗었다. 가지가 굵어지고 잎이 돋아났다. 다시 나비를 보냈다. 나무가 여러 그루 자라났다. 김성팔이 머리를 붙잡고 바닥에 쓰러졌다. 나무가 커지고 늘어나면서 숲이 무성해졌다. 양심이라는 숲이 강렬하게 뇌를 지배하게 했다. 부끄러움으로 심장이 뛰고, 온 신경이 소용돌이쳤다. 불의한 짓을 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 (중략)...

경찰을 만나자마자 김성팔은 영영 울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모조리 털어놓았다. 당황한 경찰이 김성팔을 조사실로 데려갔다. 김성팔은 조사실로 가면서 머뭇거렸다. 다시 양심이 사라진 김성팔로 돌아가려는 조짐이 보였다. 숲이 약해진 탓이었다. 다시 나비 떼를 들여보냈다. 조사관이 오자 다시 김성팔은 영영 울면서 자기 죄를 모두 털어놓았다.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모조리 알렸다. 김성팔이 조사를 다 마칠 때까지 나비들은 그 자리를 지키며, 혹시라도 양심이 약해지려 할 때마다 몰려 들어갔다. 모든 조사가 끝나는 걸 확인하고서야 나비를 거둬들였다. 창문 밖으로 빛이 밝아졌다. 창문을 열었다. 멀리 은율이네 집이 보인다. 내가 한 일을 은울이가 알면 잘했다고 지지할지, 잘못했다고 타박할지 모르겠지만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김성팔은 벌 받을 짓을 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증인이 인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

128~129 / 악인의 감정

3-1. 왜 어떤 어른들은 김성팔 의원처럼 양심이 거의 사라져버렸을까요?

---

---

---

---

3-2. 은석이는 자기가 지닌 신성한 능력을 이용해 김성팔 의원의 양심을 일시적으로 깨워서 죄를 고백하게 조종했습니다. 은석이가 쓴 방법은 정당한가요?

---

---

---

---

**【질문4】** 결핍감은 그 사람이 소유한 부와는 별 상관이 없는 걸까요?

우리 엄마는 고기는 항상 넉넉하게 사 주지만 다른 건 아니었다. 내가 막내라 떼를 쓰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지만 나도 웬만하면 참았다. 그래도 너무 갖고 싶으면 신중하게 생각한 후 엄마에게 말했고, 엄마는 내가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군말 없이 사라고 했다. 작은 물건이지만 나는 엄마에게 듬뿍 사랑받는 기분이 들었다. 가끔 엄마가 안 된다고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거부당하는 기분이 든 적은 없다. 엄마는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고, 그 설명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름 타당하다는 걸 알기에 나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물건과 상관없이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부족함이나 결핍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강산이도 비슷하다. 가난하게 지냈고, 엄마 눈이 보이지 않아서 강산이를 마음껏 사랑해 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강산이는 엄마에게서 넉넉하게 사랑받았다고 느낀다.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빠한테도 사랑받을 만큼 받았다고 느끼고, 아빠를 무척 그리워하며 좋아한다.

장혜영은 그렇지 않았다. 물건을 사려고 엄마와 다투는 장혜영에게서 짙은 결핍이 느껴졌다. 아무리 비싼 물건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결핍이었다. 어쩌면 장혜영은 친구들에게 비싼 물건을 선물로 주고, 군것질거리를 제공하면서 허전함을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강산이가 준 지독한 고통을 겪으면서 결핍을 강하게 자극받아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내가 알기로 장혜영 집안은 꽤 잘산다. 우리 집은 잘사는 편은 아니지만 나는 결핍에 빠져본 적이 없다. 그 반면에 장혜영은 늘 풍족하게 지내면서도 결핍을 느낀다. 결핍감은 소유한 부와는 별 상관이 없는 걸까? 생각할수록 참 묘하다.

- 152~153 / 배고픈 사랑

---

---

---

---

---

---

---

---

토론하기

여러분이 황련이나 뇌령과 같은 신적인 힘이 있다면, 여러분은 인류에 대해 선택을 하고 싶나요.

“역설이지만 진실이야. 내가 세상을 책임진 그 순간부터 나는 연민에 휘둘렸고, 자비심에 흔들렸어. 꽃을 예쁘게 가꾸면 잡초는 자라지 않을 줄 알았지만, 결과는 반대였어. 그때 꽃만 가꾸지 않고 잡초를 뽑아버렸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거야. 어리석게도 나는 꽃만 가꾸고 잡초에게 자비를 베풀었어. 그 탓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잃었고, 탐욕은 끝없이 커졌지. 내가 실패한 뒤에 벌어진 일을 봐. 수천 년 역사가 증명하잖아. 꽃을 가꾸려면 잡초를 뿌리 뽑아야 함을…….”

“그래도 더 나은 삶을……, 더 예쁜 꽃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

… (중략) …

문득 의문이 들었다. 나를 괴롭히던 이들도 모두 잡초일까? 특하면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이들도 모두 잡초일까? 잡초를 없애면 꽃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펼쳐질까? 그런데 잡초와 꽃은 어떻게 다르지? 어쩌면 나도 잡초가 아닐까? 잡초는 꼭 뽑아서 버려야 하나?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27~28쪽>

(은별) 도대체 참된 제가 뭘 원하는데요?

(뇌령) 이미 말했다. 너는 파멸을 원한다. **새로운 세상은 낡은 세상 위에 세우지 못한다.** 나는 네 뜻을 이룰 것이다.

< 188쪽 >

“네가 말하길, 오랜 옛날에 어리석은 사람이 찾지 못하도록 신성이 사람 안에 봉인되었다고 했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보물은 모르고 밖에서만 보물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기 안에 감춰진 보물이 가장 찾기 어려운 법이지.”

“내 생각에……, 신성은 사람 안에 봉인된 게 아니야.”

“봉인이 아니면?”

“선물이지. 싹을 틔우면 존재를 빛나게 하는 선물.”

꽃향기가 점점 진해졌다.

“사람에게 자신을 책임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스스로 자기 안에 깃든 신성을 깨울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눈동자가 닫혔다 열렸다.

눈동자에 비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사람은 어리석어.”

황련이 입을 열었다.

“어리석은데 똑똑하고 강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었다.

“그래서 사람은 위험해.”

<210~211쪽>

□ 뇌령	□ 황련	□ 은별
인간에게 희망은 없다. 인간 문명을 완전히 파괴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잡초를 뽑으면 꽃이 자란다. 인간 안에 있는 잡초만 완전히 제거하면 새로운 사회가 가능하다.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 인간은 스스로 잘못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내 주장의 근거

---



---



---



---



---



---



---



---

■ 친구들의 근거

나와 같은 주장인 친구들의 근거	나와 다른 주장인 친구들이 제시한 근거

■ 토론을 마치고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



---



---



---



---



---





**【질문2】** 다음 글을 읽고 참된 '강함'과 진실한 '내면'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깨웠을까?”

내가 물었다.

“무엇을 깨우다니? 그거야…….”

신단수 앞이 하늘거리며 내 시선을 붙잡았다.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 연화, 단아, 단우, 은석이, 강산이가 지닌 그 엄청난 힘이 진정한 신성인 줄 알았어. 물론 그 힘도 신성이긴 해, 신성은 강하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황련한테는 늘 꽃향기가 난다. 말을 할 때면 그 향기가 더 진해진다. 영원히 푸근한 향기에 묻혀 가만히 지내면 좋겠다.

“루미는 방관자를 벗어나 친구를 위해 행동했고, 아빠처럼 자신을 내던져 아기를 살려냈어. 우리는 자기 상처를 아프게 껴안았고, 자기 전부를 던져 나를 구했어. 은울이는 어떤 욕심과 사심도 없이 순수해. 나빈이는 넉넉하게 받은 사랑을 온전히 나눌 줄 알아. 연화는 루미 덕분에 참된 연화가 되었고, 우리는 단우와 단아도 막지 못한 사악한 「누」를 견뎌냈어. 은석이는 순수한 은울이가 없다면 무너졌을 거고, 강산이는 나빈이가 건넨 사랑과 따스함으로 건강해졌어.”

나는 신단수에서 황련으로 시선을 옮겼다. 맑은 눈동자 속에 비친 내 얼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연화는 세상을 파괴하는 듯하지만 오염된 물을 정화해. 단아는 고통받는 영혼을 달래고, 단우는 사람들을 보호해. 은석이는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하고, 강산이는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일깨워.”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가 본 진실을 마저 이야기했다.

**“희생과 사랑, 용서와 순수 같은 말은 참 약해 보여. 그런데 따지고 보면 것처럼 강한 말도 없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네가 말하길, 오랜 옛날에 어리석은 사람이 찾지 못하도록 신성이 사람 안에 봉인되었다고 했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보물은 모르고 밖에서만 보물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기 안에 감춰진 보물이 가장 찾기 어려운 법이지.”**

“내 생각에……, 신성은 사람 안에 봉인된 게 아니야.”

“봉인이 아니면?”

“선물이지. 싹을 틔우면 존재를 빛나게 하는 선물.”

<210~211쪽>

2-1. 희생과 사랑, 용서와 순수는 왜 그 어떤 것보다 강할까요?

---

---

---

---

2-2. 여러분 자신 안에 감춰진 보물은 무엇인가요?

---

---

---

---

**【질문3】** 나다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젠,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 계획을 실행할 수 없게 되었어. 정말 내 계획을…… 막을 거야?”  
황련이 물었다.  
“현재로서는…….”  
“사람이 바뀌리라 기대하다니 어리석은 희망이야.”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는데?”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고?”  
“네가 참된 너로 돌아오길 기대하는…… 희망.”  
진한 안타까움이 주변 공기를 채웠다.  
나는 나약한 연민을 버리고 곳곳이 버티며 내가 본 「진실의 문」을 끝까지 열었다.  
“너는 꽃을 기를 때 가장 아름다워. 죽은 흙을 살려 꽃을 피워내는 순간, 네 향기는 가장 달콤해. 그게 너야. 이제껏 네가 가려고 노력했던 길은 참된 너를 잃게 만드는 수렁이야.”  
“나를 잃는다 해도, 그 끝이 수렁이라 해도, 세상을 이대로 둘 수 없어. 이대로는 더 영망이 돼.”  
“그렇지도 모르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점은 확실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는 이가 자신을 잃어버리길…… 원치 않아. 나는 그래. 그게 고은별이야.” <213~214쪽>

3-1.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나다움' 게 무엇인가요?

---

---

---

---

---

---

---

---

3-2. 왜 나는 나답게 살아야 할까요?

---

---

---

---

---

---

---

---

# 독후감을 쉽게 쓰는 방법

흔히 독후감은 '동기-줄거리-감상', 또는 '요약-인상 깊은 장면-경험·감상'과 같은 형식으로 씁니다. 이런 형식으로만 쓰니 독후감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창의적인 형식'을 택하면 독후감 쓰기도 쉽고, 내용도 신선합니다. 독후감을 쓸 때는 1)형식을 택하고, 2)형식에 맞는 준비를 한 다음, 3)핵심 요령을 기억하면서 거침없이 쓰면 됩니다. 초고를 쓴 뒤에는 꼭 읽으면서 부드럽게 고치기만 하면 독후감이 완성됩니다.

형식선택	준비항목	독후감을 쓰는 핵심요령
□편지쓰기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 편지 쓰기 형식에 맞춰서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책의 중심 내용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담는다.(신변잡기X)
□인터뷰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 여는 글 : 인물을 간단하게 소개하거나 인터뷰 취지를 쓴다. • 인터뷰 : 실제 인물이 답하듯이 쓴다.(역지사지) • 닫는 글 : 인터뷰 내용 정리, 감상, 생각 등을 정리한다.
□생활글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 책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기 경험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 자기 경험을 실감나게 소개한다. • 소설과 비슷한 점을 거론하며 깨달고 느낀 점을 제시한다.
□기행문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떨지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 기행문 형식에 맞춰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내가 소설 속 장소를 방문하거나, 상황에 처하는 것처럼 설정하고 흥미진진하게 서술한다.
□신문기사	①책에서 다룬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 기사를 쓰는 형식에 맞춰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사건소개, 인터뷰, 사건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섞어서 쓴다. • 기사처럼 제목을 붙인다.
□인물분석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 평가할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한다. • 일정한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을 가르는 것이 평가이므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물의 행동이나 선택, 사고방식 등을 다룬다.
□한 문장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 그 문장이 나온 맥락을 소개한다. • 한 문장이 내게 끼친 영향, 깨달음, 느낀 점 등을 개인의 경험과 연관지어 자세히 서술한다.
□토론	①토론 주제 뽑아내기 ②토론주제가 나온 상황 정리 ③내 의견 정리	• 토론주제가 나온 상황을 정리한다. • 자기 의견을 선택한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한다. • 반드시 반대 의견을 다룬다.(반론과 재반론 형식으로)
□시사문제	①책과 연결된 시사문제 선택 ②시사문제 정리 ③시사문제 평가 또는 분석	• 책 내용과 시사문제를 적절하게 섞어서 소개한다. • 책에서 수립한 관점을 바탕으로 현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서평	①소개할 대상 선정 ②책의 매력 정리 ③꼭 읽어야 할 이유 정리	• 서평은 책 소개글이므로 소개할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지 설명한다. • 책이 지닌 매력과 책을 권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 자세한 설명 및 실제 독후감 예시는 『청소년 독서콘서트』(박기복/행복한나무) 참조

독후감 쓰기 준비

- 1단계 : 자신이 원하는 독후감 형식을 선택합니다.
- 2단계 : 선택한 독후감 형식의 준비사항①~③을 오른쪽 '준비사항①,②,③'에 각각 적습니다.
- 3단계 : 독후감에 적을 세부 내용을 각 준비사항에 맞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독후감 형식	준비사항	준비사항①
<input type="checkbox"/> 편지쓰기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준비사항① <b>인사부 대상 설정</b> 인사부 대상 : 설정 설치는 주요, 동선들과 정확하게 같다. 간략으로 모든 것 읽음. 어떤 내용을 읽지 전 받아들이는지 많이. 단행본에서 읽을게 지음. 완성이 때 단편을 받아 읽는지 의유를 포함.
■ 인터뷰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준비사항② <b>질문을 다양하게 준비</b> 이 동선과 친구들을 읽었을 때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이 국문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 국문에서 어떤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 국문에서 어떤 단점을 느꼈는지?
<input type="checkbox"/> 생활글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준비사항③ <b>답변 생각해 보기</b> 이 책을 읽었는데, 어느 때와 비교 할까요? 이 국문에서 읽게 되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 국문에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 국문에서 어떤 단점을 느꼈는지?
<input type="checkbox"/> 기행문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떻게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input type="checkbox"/> 신문기사	①책에서 다룬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input type="checkbox"/> 인물분석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input type="checkbox"/> 한 문장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독후감 형식	준비사항
<input type="checkbox"/> 편지쓰기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input type="checkbox"/> 인터뷰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input type="checkbox"/> 생활글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input type="checkbox"/> 기행문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떻게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input type="checkbox"/> 신문기사	①책에서 다룬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input type="checkbox"/> 인물분석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input type="checkbox"/> 한 문장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input type="checkbox"/> 토론	①토론 주제 뽑아내기 ②토론주제가 나온 상황 정리 ③내 의견 정리
<input type="checkbox"/> 시사문제	①책과 연결된 시사문제 선택 ②시사문제 정리 ③시사문제 평가 또는 분석
<input type="checkbox"/> 서평	①소개할 대상 선정 ②책의 매력 정리 ③꼭 읽어야 할 이유 정리

준비사항①

---

준비사항②

---

준비사항③

---



독후감 공유하기

※ 독후감을 공유할 때는 평가를 하지 말고 독자로서 반응해주세요.  
글을 공유하며 서로가 지닌 생각과 느낌에 공감하고,  
나와 친구가 함께 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합니다.

1. 내가 쓴 독후감을 읽은 친구들의 반응을 적습니다.

친구이름	친구가 해준 말

2. 친구들이 쓴 독후감을 읽고 돋보이는 점을 찾습니다.

친구이름	친구가 해준 말

3.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드는 생각, 느낌을 적습니다.

---



---



---



---

※책과 친구가 되면 인생이 풍요롭게 가꿀 수 있습니다.



행복한나무 출판사

※ 청소년 성장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입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꿈, 진로, 관계, 사랑, 우정 등을 키워드로 한 <성장소설>부터 과학, 신화 등의 <지식소설>도 담고 있습니다. 동학, 대장간 소녀, 소년 독립군 등의 주제를 통해 <역사소설>을 만날 수 있고,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을 통해 <인권소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인 수학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수학소설>도 있습니다.